

회 요 세 평



정삼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부장

증거 기반(evidence-based) 의사결정은 통계, 연구자료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 기반 정책결정은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 중시되기 시작한 후 전세계

증거 기반 의사결정과 광주·전남

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거 기반 정책수립 위원회법'(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물가·금융·외환 등 종합 고려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효과를 거두려면 데이터, 조사연구자료 등의 품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의 증거 기반 정책결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국내 물가, 경기 및 금융·외환시장 상황, 세계경제의 흐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look-at-everything approach)한다.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경제적·통계적 모델링을 통해 각종 조사연구 보고서를 생산한다.

지역본부에서도 지역경제 관련 각종 통계수집, 조사연구, 면담 등의 업무를 통해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뒷받침한다.

통화정책, 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과 함께 활용이 쉬워야 한다.

데이터센터 조성 큰 의미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행정이나 경제정책 수립뿐 아니라 의료, 취업, 교육, 환경,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야 하는 데

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전기는 서버 가동뿐 아니라 서버와 네트워크가 뿜어내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방설비 유지에 사용된다.

데이터센터 조성 큰 의미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행정이나 경제정책 수립뿐 아니라 의료, 취업, 교육, 환경,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사 설

'광주 문화관광사업' 지속 관리해야

광주시는 최근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파사드와 동구 급남로나비공원 조성 등에 이어 이번엔 국비 3억원을 확보해 충장로 K-POP 스타골목의 야간관광 명소를 위한 미디어파사드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이런 기초 속에서 문화예술 정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 지원 및 권리보장을 비롯해 미디어아트 365 쉼터 광주만들기 추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인

디어를 동원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화사업과 예산 투입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갈지, 유관기관의 협력을 어떻게 얻어낼지에 대한 선 소홀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화예술, 관광사업을 위해 관계당국은 각종 시설 투자와 콘텐츠 개발 부문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중·장기사업의 경우 수백억, 수십억원이 들어간다.

고령층 '언택트 고립' 배려 필요하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사람과 접촉 없이 물건을 주문이나 결제할 수 있는 '키오스크'와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체된 골목 상권에 '무인점포'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햄버거 가게, 음식점은 아르바이트생 대신 무인 주문 기계(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렇게 무인점포와 무인 판매시설인 '키오스크'가 우리 주변 곳곳에 자리잡으면서 고령층은 답답하고 불편하다.

우선 고령층도 적극적인 자세로 배워야 한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면 기기 사용법이나 무인시스템을 익혀야 한다.

이봉철의 일찌골프 (37)



템포는 이탈리아어로 일이 진행되는 빠르기를 뜻한다. 음악에서는 악곡을 연주하는 속도나 박자이다.

골프스윙에서 템포에 변화를 주는 것은 스윙의 흐름을 예상하게 한다.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탑에서 내려오는 다운스윙, 그리고 이어지는 임팩트에 팔로우스로우를 거쳐 피니시에 도달하기까지 스윙단계별 박자인 속도 비율

스윙 스피드의 비밀 '템포'



을 뜻한다. 볼을 강하게 임팩트하기 위해서는 템포가 일정해야 한다.

스윙템포는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조화인데 사람의 얼굴과 체형이 제각기 다르듯 골퍼마다 스윙의 리듬과 템포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

빠른 스윙으로 전개된다. 비거너 골퍼들은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시간비율이 1:1이나 4:1로 빠르거나 느리지만 프로골퍼의 경우 대부분 어드레스에서 백스윙탑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거기에서 임팩트까지의 시간 비율은 2:1에서 3:1 정도이다.

미 골프매거진은 스윙템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사에서 3:1의 비밀을 제시하고 있다.

볼까지 내려오는 임팩트까지는 0.3초가 걸린다는 분석결과이다.

백스윙은 느리고 낮게 하라는 볼문율같은 주문은 비거너들에게 쉽지 않은 주문이다.

골퍼마다 스윙의 템포는 약간씩 다르다. 레슨프로들은 하나-둘-셋이라는 구호에 맞춰 스윙하라고 비거너들에 주문한다.

특 지 광 장

인터넷망의 발달과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중심 일상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범죄의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며 진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사건은 비트코인 마진거래, 장외 주식 거래 등을 빙자한 사이버 투자사기이다.

서 민 울 리 는 투 자 사 기 근 절 되 야

내줄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 그래프 등을 보여주고 단톡방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익 후기 등을 공유하며 해당 투자가 진실한 것처럼 믿을 수 있게끔 한다.

이에 피해자가 투자 상담 문의를 하면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해보라며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입금받은 뒤 수익이 났다며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투자 거래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가 성공하면 더 많은 투자금을 유도해 입금받은 뒤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한 그래프와 거래내역 등을 보여주며 출금을 유도한다.

그러나 출금을 의뢰하면 세금 문제가 있으니 추가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거나 비정상 거래로 금융감독원에서 감사가 나와 기다려야 한다거나, 서버에 장애가 생겨 서버 복구비용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대며 출금을 마루고 결국 연락이 두절되는 방식이며 주로 해외에 IP를 두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며 카톡에 이용된 전화번호 또한 대표폰인 경우가 많다.

보통 이러한 투자사기의 경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대표통장일 확률이 높으며 해당 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들은 여러 계좌를 거쳐 결국은 코인 거래에 이용되거나 사이버 도박자금과 섞여 출처

가 불분명해진다. 게다가 사이버 투자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다르게 지급정지도 할 수 없어 그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게 우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 일확천금을 꿈꾸고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게 사실이다.

기 지 수 집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역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애란 경제부 부장대우

를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환영한다.

지역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과 산업안전보건 설비를 개선에 대한 정부가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성남 편집국장姜賢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경 제 부 (062) 720-1066-67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사 회 2 부 (062) 720-1043 등 부 권 부 (061) 743-4200-01 문 화 부 (062) 720-1071 사 진 부 (062) 720-1040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